

# “색에 반하고 맛에 취하자!” 다양한 장르 청년 작가 초대전

### 무주 최북미술관 'four-square : 광주 작가 4인전' 개최

무주군은 2023년 최북미술관 초대전 'four-square : 광주 작가 4인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최북미술관 2층 기획 전시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광주광역시에서 활동하는 청년 작가 4인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서양화와 한국화, 판화 작품 등 총 26점을 만나볼 수 있다.

무주에서 “작은 바람”을 비롯해 “끼리끼리”와 “마음의 무게”, “소풍” 등 10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손연우 작가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혀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의 깊은 내면을 심도 있게 표현했다.

성혜림 작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느끼는 자신의 모습을 아이들을 통해 나타낸 “조용한 가족”과 “치유”, “전하는 메시지”, “응시” 등 5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조선아 작가는 “나의 봄의 이유”와

“소란한 밤을 지나”, “긴 여행”, “숙면의 기억” 등의 작품(5점)을 통해 거대한 자연의 순리 속에서 느낀 뚜렷한 영감과 신비로움, 아름다움, 경외감 등을 공유한다.

그리고 임현재 작가가 집안 풍경, 방바닥에 흐트러진 머리카락, 장난감, 빨래 더미 등 지극히 일상적인 현실의 풍경을 그려낸 작품 “따뜻한 눈이 내리면”, “그렇게 간다. 1”, “균형잡기 2”, “그것이 인생일지라도” 등 6점도 볼 수 있다.

무주군 최북미술관 양정은 학예사는 “일상과 맞닿아 있는 친숙한 작품들을 통해 깊은 사색의 시간을 가져 보면 좋겠다”며 “다양한 장르로 찾아온 청년 작가들의 작품이 가을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제1종 공립미술관인 무주최북미술관(무주읍 최북로15) 이용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17:30까지 입장 가능)까지이며 관람료는 무료(월요일 휴관)다. /무주=전문선 기자

##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오늘 개막… 17일까지 프로그램 ‘풍성’

올해로 17주년을 맞이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가 14일 화려한 막을 올린다.

1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4일간 장수읍 중앙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펼쳐지는 이번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는 국화꽃길, 가족꽃길, 벚꽃길에 조형물 전시 등을 통해 더욱 풍성하고 볼거리 가득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돼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장수 생문화 예술동호회 음악회, 심용환 역사학자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장수가야문화제를 시작으로, △레드푸드를 찾아라 △레드콘서트 △오사토 달인을 찾아라 △레드음악캠프 △레드트루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돼 있어 장수군의 명품 레드푸드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올해 축제에서는 ‘적과의 동침’ 프로그램이 다시 진행돼 방문객들이 1박 2일 동안 장수군의 청정 자연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포스터

속에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장수여행’을 통해 가을밤 이야기꾼과 함께 장수 대표 역사·문

화 유적지를 돌아다니며 역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농특산물 판매전에서는 국내 최고 명품 사과로 꼽히는 ‘장수 홍로 사과’와 품질 좋은 ‘장수 오미자’, ‘장수 한우’ 등 청정장수 고랭지에서 생산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밖에도 △사과나무시체형 △장수한바퀴 △토마토속황금반지를 찾아라 등 다채롭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구성돼 있어 방문객들이 장수의 맛과 멋,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장을 찾아주시는 관광객 여러분이 특별하고 즐거운 추억을 쌓으실 수 있도록 먹거리, 즐길거리와 더불어 볼거리까지 풍성한 축제를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청년들 특별한 하루 ‘마이지엄’

### 제2회 진안청년의 날 행사 15일 문예체육회관에서 개최

진안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특별한 하루를 위한 행사가 오는 15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안 문예체육회관에서 열린다.

진안청년협의체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들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열어주며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청년들의 창의성을 격려하기 위해 ‘진안청년들의 특별한 하루’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열린다.

청년들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먼저 스카면탈춤(Mask Salon)은 참가

자들이 자신이 꾸민 독특한 가면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여해 창의적인 가면들이 만나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신묘한 자판기(Mystical Vending Machine)는 신개념 소통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자신의 질문을 자판기에 입력하고 신비로운 답변을 받을 수 있어 재미와 깊은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로컬 지상주의(Local Grounding)는 자기만의 헤어와 메이크업 스타일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재즈콘서트(Jazz Concert)는 19시부터 21시까지 다양한 장르의 재즈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부대 행사로 지역의 특산품을 다양한 메뉴로 만나는 먹거리 판매부스와 협의체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비롯해 다양한 물품들을 판매하는 폴리마켓, 지역청년들의 프로젝트와 활동을 소개하는 청년홍보관 등 다양한 주제도 참가자들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청년 행사는 진안 청년들이 주도적이고 창의적으로 기획한 만큼 지역 청년들의 생각을 담은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청년들의 열정과 재능을 뽐내는 자리에 많은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회와 축제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진안홍삼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 진안군, ‘진안홍삼축제’ 대비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경찰서, 진안소방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위원회와 축제관련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2일~24일까지 마이산 북부일원에서 열리는 ‘2023 진안홍삼축제’ 안전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한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전춘성 진안군수)를 개최했다.

위원들은 축제부서로부터 축제개요와 재해 대처 계획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안을 제출받아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로 관광객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전춘성 위원장은 “진안홍삼축제는 군 대표 축제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큰 행사인 만큼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축제가 개최되기 전날인 오는 21일에는 전북도, 소방서, 경찰서,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점검단을 구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과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및 행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일자리센터, 청·장년 일자리 창출 협력

### 군장대·전주기전대·전주비전대 LINC3.0사업단과 협약 체결

진안군일자리센터는 지역사회 청·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관 공유·협업 활동 증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군장대학교 LINC3.0사업단, 전주기전대학 LINC3.0사업단, 전주비전대학교 LINC3.0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했다.

비전대학교에서 열린 업무 협약은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 창출과 공유·협업을 통한 생태계 조성을 통해 체계적인 산학연관 협력 사업을 전개해 우수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연계 청·장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화에 관한 사항 △교육·연구·기술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인력·시설·설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지역사회 연계 사업성과 창출 협력에 관한 사항 △산학연관 공유·협업을 통한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기타 산학연관 협력의 다양화 및 발전 등에 필요한 협력 사항 등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표창 수여식 개최

장수군은 12일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회복지분야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식 및 기념식을 개최했다.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강영) 주관으로 열린 이번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코로나19 극복 이후 처음 열린 행사인 만큼 장수군 사회복지종사자 격려를 위한 유공자 표창, 축사, 장수군 복지사각지대 제로화(Zero) 공연 등이 진행됐다.

사회복지분야 유공 표창은 장수군수, 장수군의회회장, 장수군사회복지협의회장, 전북사회복지협의회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등 훈격별로 총 9명에게 수여됐다.

이어 2부 행사에서는 장수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일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특강을 진행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협의체 위원들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 열려

진안군은 치매 극복의 날을 기념해 13일 진안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제16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치매 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 알츠하이머병협회(AD)가 치매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9월 21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치매환자 및 가족,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모여 치매극복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극복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치매인식개선을 홍보했다.

행사에서는 소리꾼이자 공연가인 임서방의 ‘인생 소풍은 지금부터’의 흥겨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치매예방지도사 허채원 강사의 ‘100세 시대를 위한 치매 이해와 예방’을 주제로 한 강연 진행으로 참여자들에게 치매 예방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또한 치매예방체조 동영상상영해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간단한 체조를 익힐 수 있도록 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